

서여대협 중상 안건서

일시: 1996년 6월 14일 5시

장소: 홍익 대학교 여학생회실

안건

1. 지구 기화추 상황 보고

1) 기화에서 제기되는 문제 논의

2. 정신대 투쟁 중간 총화 (각 단위, 지구 사업 투쟁 평가)

3. 기간 여학 단위의 통일 투쟁 평가, 목표점, 방향성

1) 서여대협의 자주교류투쟁

통일투쟁에 대해 승동력·배각해적이었다.

{ 기화 = 금요일집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통일투쟁 고민하자.

4. 6월 사업 계획서 토론

⑤ 여름농활 준비 상황

6. 일상투쟁 (수요집회, 금요일집회)을 주체적 입장에서 평가해봅시다.

7. 뒤풀이 사수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풀이를 사수합니다.

4. 학내에서 정신대 투쟁의 흐름을 잘 총화했는지
5. 기층과 중앙의 결합(진어대협과 단어 과까지)이 잘 되었는가
6. 그간의 투쟁의 성과와 과제는

6월 사업 계획서

들어가며

1996년 이제 시작이다라며 생각했던 지가 엇그제 같은 데 벌써 6월입니다. 아직 6월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질 모르겠습니다. 세네기 맞이 사업, 개강맞이 사업. 총회, 대의원 대회 이어서 공안탄압의 칼바람 속에 연일 계속되는 열사정국과 총선, 김영삼에 맞선 연일 계속된 투쟁, 정신대 투쟁, 출범식. 참 분주하고도 빠듯했던 생활들이었습니다. 이제 1학기도 끝나는 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자 했던 어제와 다르게 오늘 일상에서 치열함은 참 많이도 사라져버렸음을 느낍니다. 작은일 하나에서 풍기는 성실함, 작은 인간애와 여유로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자기 계획등 쉬운듯 하면서도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노수석열사, 권희정열사등 우리의 가슴속에 열사들의 이름이 결코 지워져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한총련 출범식장에서 의장님의 사발은 한 개인의 사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백만학도가 김영삼 정권에 대한 분노를 모아내고 투쟁을 결의했음을 잊지 않고 인간해방을 가져오겠다는 다부진 결의를 한 여학간부는 더욱더 헌신적인 자기 노력과 일상에서의 세심한 계획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삶이, 조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단위 여학간부들의 건투를 바랍니다.

1. 당면 정치 정세

한국 민중

“미제와 김영삼 일당의 식민지 지배질서와 반민중,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 행각에 맞서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반미 반김 투쟁으로 자주민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고 있다”

-15대 총선을 일찌기 있어 본 적이 없는 최상, 최대의 부정협작선거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의의 반영인 여소야대의 총선결과마저 뒤엎기 위해 야당과 무소속의원을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있는 김영삼 문민파쇼집단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투쟁으로 모아가고 있다.

- 평균 빛이 975만원에 달하고 있고 해마다 두자리수 물가인상에 임금인상은 1자리수 로 노동자

들의 실질 임금은 떨어지 노동력 재생산은 고사하고 최저 생계미도 유지할 수 없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를 한국협심 노동자의 분신으로 보듯이 김영삼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으며 절반 노동자들은 생존의 권리, 민주주의의 권리를 비롯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청년학생들은 대선자금공개, 5월 학살자 오나건 처벌과 기본적인 문민 교육 개혁에 대한 투쟁이 들끓고 있으며 연사들의 피값을 기필코 갚고야 말겠다는 투쟁의 결의를 다져가고 있다.
- 민중파효탄압에 의해 수많은 애국민중이 감기 구속되며 생명까지 잃고 있는 것과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심각한 개량화 책동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미제와 김영삼 집단

5.18광주 학살의 비밀외교분시의 공개로 미국의 본질이 발전하에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반미감정이 더욱 급격히 고조되고 있고 식민지대리정권인 김영삼정권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정책이 민중들의 투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심각한 집권연장의 위기의식을 맞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강진을 영구화하며 한반도 전체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소야대 정국 뒤집기를 위한 공작 정치에 혈안이 되어있다.

* 민주애국세력에 대한 파쇼폭압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 남북대결, 무력증강, 각종 전쟁연습을 실시하는 등 한반도 전쟁책동을 획책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친미사대 정권 김영삼은 전산업을 걸쳐 점차적인 전면적 수입개방과 각종의무기수입책동으로 경제적 수탈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한국민중의 목줄을 옥죄고 있다.

2.6월의 시기

정치정세면

- 1) 6월은 민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노동자,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각계민중들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김영삼 타도 투쟁으로 방향을 맞추어 저속거적인 대규모 투쟁으로 전개되는 시기이다.
- 2) 미제와 김영삼은 식민지 대리 정권의 집권말기의 안정과 집권 연장을 위한 구도를 확보하기 위해 온갖술수를 부리고 있는 시기이다(여소야대 정국 뒤집기, 민주애국세력 공안탄압, 한반도 전쟁책동등)
- 3) 7,8월 통일국면을 유리하게 열어젖히려는가 못하느냐 달려있는 시기이다.
- 4) 96년 하반기, 더 멀리는 97년까지의 정국주도권을 누가 질머쥐느냐가 달려있는 시기이다.
- 5) 한반도 전쟁책동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 등 미제의 정치군사적 침탈과 경제적 수탈(PCS투쟁등)이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전민중의 반미 자주화 투쟁이 본격화 되는 시기이다.

여학단위의 상황

- 1) 정신대 투쟁등 그간의 투쟁의 성과를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후 결의를 다져야 하는 시기이다.

- 2) 곧 있으면 다가올 기말고사등 간부들이 이완되고 개별화되기 쉬운 조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생활을 다시 한번 짜들이가야 하는 시기이다.
- 3) 7,8월 통일 투쟁을 준비하며 대중적으로 자교투쟁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 4) 학우들과 1학기 사업을 대중적으로 평가하고 방중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다.

3.6월 목표

1) 정치 사상적 목표

- 1> 여학우들의 자주 의식화의 과제를 일관되게 풀어가자.
- 2> 반미 자주의식화의 내용을 학우들과 함께 전개하자.
- 3> 김영삼의 본질을 끊임없이 알려내며 반김 투쟁에 선봉에 나서자.
- 4> 통일 투쟁을 준비하며 자교투쟁을 대중적으로 준비하자.

2) 조직적 목표

- 1> 회의, 학습, 총화의 완강한 조직생활을 복구하자.
- 2> 조직적인 위임분공으로 간부들의 역할을 높여내자.
- 3> 간부단련 사업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자. (학우만나기, 투쟁속에서 선진단등)

3) 대중적 목표

- 1> 1학기 사업을 학우대중과 함께 총화하여 여학생회가 학우속에 뿌리내리도록 하자.
- 2> 자교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여 대중사업의 정형을 만들어보자.
- 3> 농활준비를 알차게 하고 분만활동에 여성농민만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사업을 잘 전개하고 여학단위의 단위 장악력을 넓히내자.

4. 실현하기 위한 방도

3,4,5월동안 사업을 총화하며 각급 단위 치지와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토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이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학우들과 함께 풍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간부에 대한 정치사상사업을 실행하고 간부에 대한 교양해설 사업을 강화하자.
 - * 간부회의 모임을 내실있게 전개하자.
- 2) 핵심지도단위의 역할을 맥방으로 강화하자.
 - * 핵심이 핵심답게 모범을 창출하여 간부 모범을 진파하자.
- 3) 사업, 투쟁의 집중과 분산을 잘하자.
- 4) 아랫단위를 지도하는 데서 소극성을 탈피하고 아랫단위의 역할을 높여내는 방향으로 목적의식적인 지도사업을 펼치자.
 - * 단위 지도 사업의 정형을 만들어 보자.

5. 구체적 사업

1) 각 대학에서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속에서 여학우의 자주의식화의 과제를 놓치지 않고 전개하며 6월의 시기속에서 내용을 잘 짚아들이자.

예로 부정의 퇴폐향락 추방운동, 성폭력의 문제가 대두되는 시기속에 학내 성폭력의 문제나 성의 상품화, 여름철 과다 노출에 대한 토론등

2) 6월 임시국회속에서 한미행협 개성이 이어기 될 것이다. 시어대협 중심으로 기지촌 활동. 또는 한미행협의 불평등과 진면 개성을 요구해들이자는 학내 신진 작업등을 통하여 반미의식의 확산에 주위를 기울이자.

ㄴㄴ

3) 1달전에 가정폭력의 참상을 극명하게 알려주었던 *** 할머니 사위 살해 사진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비록 낮은감이 있지만 이 사진의 본질인 가정폭력의 실상을 알려내며 ***할머니 석방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한다.

4) 민족대단결의식 확산과 7.8월 통일 투쟁을 준비하며 학내에 학우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나 북한 바로알기 (이북학우들의 인애관, 여성들의 삶등) 등을 통하여 통일의 의지를 모아내고 자교투쟁을 대중적으로 준비하자. (구체적인 것은 자교투쟁 토론속에서)

5) 여성농민반 준비를 하면서 여학간부들의 민중성과, 계급성을 체득할 수 있는 계기로 단위 여학간부들이 존재 하지 않는 단위에 주체를 세워내고 지도하는 속에서 여학단위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로 삼고 치열하게 준비하여 조직적, 대중적 성과를 남기오자.

* 여성농민반

• 여학단위의 기간 통일투쟁 준비.
(생활평과 반평의 지평을 찾아 리얼한 사진).
* 여학단위의 집단 투쟁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부담 - 방학후 내방은 지역별로 정리.
(각등 중심 지출).
* 학생회 중간 총회.
• 10월 국회성원 서명운동 등.